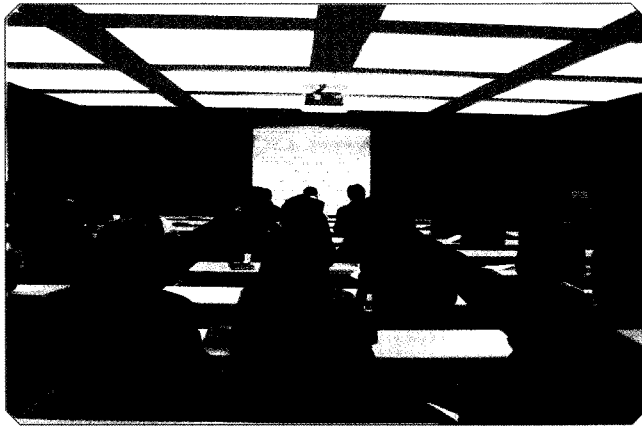


2011년 제1차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설명회



●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1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은 총 35억(신규 33억원, 계속 2억원)을 지원하는 제품안전관련 지원사업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공고 및 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를 가졌다.

독거노인의 위한 전기매트 기증행사로 따뜻함 나눠

● 협회는 지난 3월 2일(수)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도내 독거노인을 위한 전기매트 400개(시가 8천만원 상당)를 전기매트협회의 지원을 받아 도모금회에 기탁하였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노후된 전기매트 사용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도모금회를 통해 도내 독거노인 4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이날 협회 김봉균 회장은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독거노인분들이 꽃샘추위를 더욱더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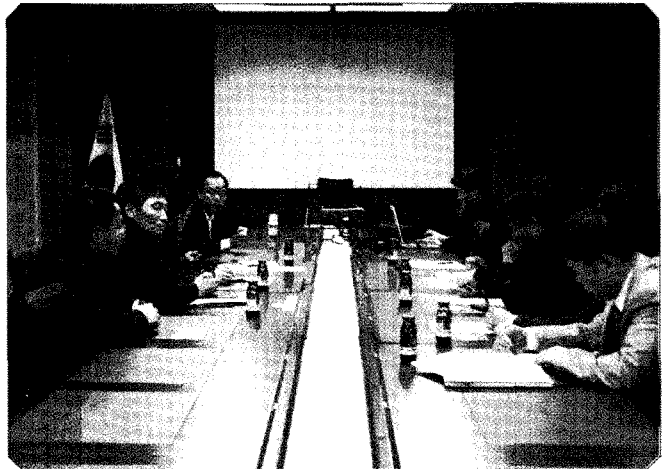
한국제품안전협회 공산품분야 임원단 신규 임명



● 금년 2월 5일부로 협회의 업무가 공산품까지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산품 신규임원을 선임하고 기존 임원들과 상호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임명된 신규임원에는 (주)경안전선, (주)금성토탈퍼니처, (주)리바트, (주)멜리오 유니온랜드, (주)모나미, 한국타이어(주), (주)해피랜드 F&C, (주)아카데미과학, (주)아가방엔컴퍼니, (주)엘지생활건강, HJ산전(주), 웅진코웨이(주), 삼천리자전거(주), 실버팩스(가나다 순) 등의 기업이 임명되었으며, 향후 제품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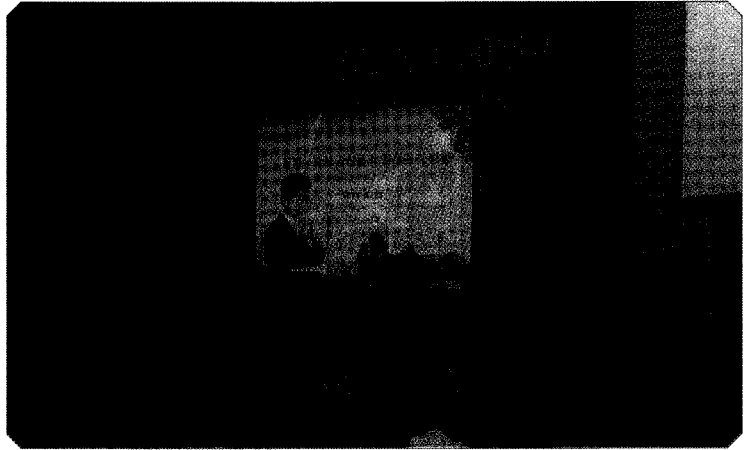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협회와 공산품인증기관이 한자리에

● 협회에서는 불법·불량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체계화된 공산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공산품인증기관 간담회를 지난 3월 10일에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 이만찬 상근부회장은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특성도 다양하여 제품안전관리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협회와 인증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안전이 확보된 공산품만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급선무 일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협회와 공산품인증기관간 MOU를 통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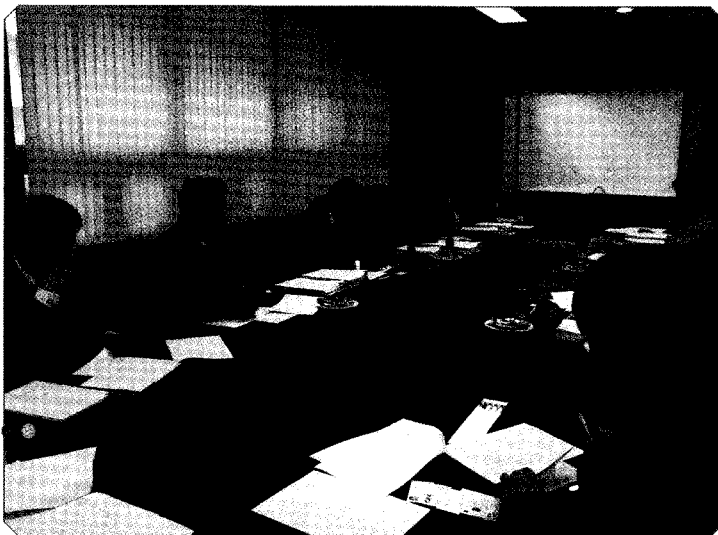


변화된 제품안전관리제도(KC) 설명회 참가

● 기술표준원에서 주최한 제품 안전관리제도(KC) 설명회가 지난 3월 23일 COEX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품안전과 관련한 기업 및 유관기관, 정부관계자가 참석하여 변화된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날 협회 이만찬 상근부회장은 “불법·불량 공산품의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과제별 진행사항 점검



● 협회에서는 제품안전기술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위원회 회의를 지난 3월 24일에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간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참여업체에 대한 사업진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제품안전기술기반 조성사업 진행사항을 중간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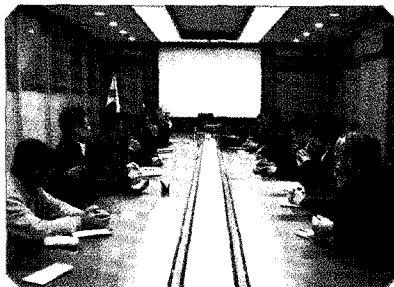
2011년 3월 품목별 협의회 활동 현황

차단기 제조업체 협의회(3월 9일)



- 차단기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불량 차단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된 차단기제조업체협의회 회의가 협회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차단기제조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차단기 기술기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협회와 지속적인 업무교류를 통하여 불법·불량 차단기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기매트 제조업체 협의회(3월 11일)



-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 조직에 대한 의견조율과 찬반토론의 자리를 가졌으며, 향후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업무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불법 전기매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수립하고 협회의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온도조절기 제조·수입업체 회의(3월 24일)



- 이번 회의에서는 협회 백용선 본부장의 협회 소개 및 제품안전 관련 제도설명을 시작으로(사진 참조) 온도조절기 제조업체 협의회 구성방안 및 관련 인증규격에 대한 검토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